

휴가 끝난 지역 산업계 ‘夏鬪 비상’

〈하투〉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 휴가가 끝난 지 사흘만인 10일 파업과 함께 교섭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력 대기업인 기아차와 금호타이어도 본격 임금 및 단체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9일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상태로 이르면 12일부터 부분파업 등 공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에 비해 협상을 늦게 시작한 기아차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해 불법 논란이 일면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신경써 왔다. 조합원들이 노동쟁의행위를 찬성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현대차 노조와 함께 추가 파업

기아차 임단협 결렬...주중 현대차 동조 파업 금호타이어 매각 앞 본교섭 재개...다우주 본격 협상

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사측과의 임단협 7차 교섭에서 크게 개선된 기아차의 상반기 경영발표가 사상 최대 경영성과를 기록했다며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노조가 파업일정을 계획하면서 일괄제시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차 노조는 금속노조 공통인 임금 15만2050원(기본급 대비 7.2%)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국민 정서와 부품사 노동자와의 임금차이를 고려할 때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임금피크제 확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을 앞두고 조용한 교섭을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6월 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여름 휴

가전인 지난달 27일까지 모두 4차례 2016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던 금호타이어 노사는 10일 오후 5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교섭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정기적으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매각시 고용보장, 기본급 5.16%(15만2060원) 상향 등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또 인원 충원이나 국내공장 설비투자, 임금피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여름 휴가가 끝난 만큼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측은 어려운 경영 상황 등을 노조에 전달하고 노사 입장차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환율 연중 최저 수출 기업 애로

외환시장에서 연이은 원화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0일 장중 1100원 밑으로 떨어지자 자동차·가전 등 수출 비중이 큰 제조 기업들은 이번 환율 쇼크로 막대한 환차손을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1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화강세 상승은 달러화 표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국내 공장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자동차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성을 포기하고 가격을 유지하거나 판매대수를 포기하고 가격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아차는 지난 2014년 2분기 세계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갔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급락하는 등 적적탄을 입었다. 상반기에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58원 하락하는 등 원고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분기에 3000억 원 상당의 환차손을 봤고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환율이 3~4% 내리면 원화 매출 기준으로 1000억 원 전후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도 "달러가 10원 상승하면 월 80억 원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달러가 내려가면 반대로 마이너스 효과가 작용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부품 부문은 결제가 달러화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면 원화로 산출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는 분위기다. /김대성기자bigkim@



주가-환율 '희비' 원·달러환율이 10.7원 내리 1095.4원으로 장을 마감해 연중최저치를 기록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 0.86포인트 오른 2044.64로 장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7월 경매 낙찰가율 광주 90%·전남 84%

주거시설 경매 한산...광주 토지 한달새 48%P ↑

7월 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4.5%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도 토지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상승세를 유지했다.

10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7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법원경매 평균 낙찰율은 90.4%로 지난 6월 82.9%에서 7.5%포인트 올랐다. 제주(125.3%), 대구(93.5%)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광주의 지난달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134.0%로 전년(86.4%)보다 47.6%포인트 급등했다. 가장 인기있는 물건은 광주구 대산동에

위치한 목장용도 1만4032㎡로 17명의 응찰자가 몰렸으며 감정가의 200%인 9억 원에 낙찰돼 광주지역 법원경매 최다응찰자 및 최고가 낙찰경매로 기록됐다.

업무·상업시설의 낙찰가율도 지난 6월 67.4%에서 지난달 76.3%로 8.9%가 올랐다. 주거시설 법원경매는 65건이 진행돼 이 중 22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93.3%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수는 5.6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평균 낙찰율은 전월(74.8%)대비 5.2%포인트 상승한 80.0%를 기록했으며

입찰자 역시 3.6명으로 전월보다 소폭(0.2명) 증가했다.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은 지난 2011년 4월 84.0%를 기록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80%를 넘긴 80.9%를 기록했다. 경매는 106건이 진행돼 27건이 낙찰됐으며 광양시 광양읍 인사리에 신축 중인 이서령기념병원이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약 85%인 68억1320억 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상승에 기여했다.

반면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82.1%로 전월(84.5%)보다 다소 줄었으며 토지 역시 전월(102%)보다 감소한 89.1%로 집계됐다. 이는 경매 진행 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44.64 (+0.86)
- ↓ 금리 (국고채 3년) 1.22% (-0.03)
- ↑ 코스닥 707.46 (+6.73)
- ↓ 환율 (USD) 1095.40원 (-10.70)



교육·교통·조망 3박자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 효천 1지구 1527가구 분양...농성동에 견본주택

중흥건설이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2필지(2019년 1월 입주 예정)를 오는 12일 분양한다.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는 광주시 남구 입암동 B-1·B-3블록 두 개 단지로 총 1527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3층 14개동에 전용 84㎡ A 742가구와 전용 84㎡ B 90가구 등 총 832가구가 들어서며 B-3블록은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에 전용 84㎡ A 672가구, 전용 84㎡ B 23가구 등 총 695가구가 동지를 둔다.

전국 30여개 아파트 공사현장을 운영 중인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는 명품 아파트라는 입소문을 타고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효천1지구 아파트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광주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인 2호선 연장(총 41.9km, 정거장 44개) 개발호까지 더해져 교통망은 더욱

확충될 예정이다. 또 효덕·동광주IC로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제2순환로와 국도1호선 이용이 용이하다. 송암일반산업단지와의 출퇴근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

대촌천 수변공원(예정) 및 근린공원이 인접해있는 점도 강점이다. 효천지구~포동사를 잇는 트레킹 코스(4.2km)도 조성될 예정이다. 진경산수 석가산 특화조경을 비롯해 테마형 물놀이터와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계획이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다.

주변에 인성고, 동성고, 문성고 등 명문학군을 끼고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다. 노인 여가·복지 종합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골프장 빛고을CC,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도 인접해 있어 문화·레저·의료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393-55번지에 마련된다. 분양 문의 062-364-0001. /김대성기자bigkim@

지역 금융민원 1년전보다 20% 감소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금융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광주지원 처리 민원건수는 10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5건보다 20.5%(265건) 감소했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던 손해보험 민원이 16.3% 감소했다.

손해보험은 지난해 상반기 계약과 해지,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한 민원이 많

이 증가했다. 이는 보험인수 강화와 보험사기 혐의 병행 증가로 인한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한 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운영으로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은행과 비은행(신용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리스) 관련 민원은 각각 128건, 1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37건) 12.2%(26건)가 감소했으며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7건으로 30%가 감소했다. /최재희기자 lion@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성업중!!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다슬기 요리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특허번호 10-1097784호
 특허번호 10-0548199호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